

제주 해녀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장애란*

안명숙**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해녀복의 역사적 고찰
 - 2. 해녀복의 제작기법
 - III. 제주 해녀복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 I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제주지방은 기후, 생활습관, 生業的인 特殊性으로 인해 다른 지방과 달리 특이한 복식 형태가 발달되어 오늘날의 제주지방 토착복으로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즉 노동이 생활의 전부였기 때문에 의례복이나 외출복보다는 노동복이 필요했고, 이러한 현실적 욕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牧子服(가죽 두루마기), 農夫服(갈옷), 海女服(물소중이) 등 향토색 짙은 제주도 양식의 복식이 발달하였다.²⁾

이러한 제주도 양식의 복식은 서민들의 생활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안되고 또 나름대로의 생활 풍토에 적합한 형태로 개량되어 왔다. 특히 갈옷과 해녀복은 그들의 생업인 농업과 어업활동에 적절한 형태로 창안, 제작되어 오늘날의 제주 작업복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의복으로 남게 되었다. 제주지방의 작업복은 농민들의 노동복 겸 일상복이었던 '갈옷'과 해녀들이 바다에서 잠수할 때 착용한 '해녀복'과 추운 겨울 산야를 다닐 때 착용한 방한용 의복인 '가죽옷'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중 구성상 작업하기에 편리하고 과학적이면서도 위생적인 제작기법으로 이루어진 해녀복에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 광주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1) 김동욱, 고부자, 1975, 『하와京樣의 特有服飾』, 제주도 66호, p.35

2) 제주문화자료총서 제주의 민속IV, 1996, p.27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제주 해녀의 작업복은 '소중이'와 대별되는 '물옷'³⁾이다. '물옷'은 下衣에 해당하는 '소중이', 上衣에 해당하는 '물적삼', 그리고 머리에 써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물수건'의 통칭이다. 이 세가지 의복이 해녀복의 한 벌을 이룬다. 그 외에도 '불턱'에서 작업으로 인해 언땀을 녹일 때 보온용으로 돌려쓰는 '뚜데기'가 있고 전형적인 해녀복은 아니지만 일부 젊은 해녀들이 1970년대부터 일부지역에서 '물수건' 대용으로 착용하던 '까부리'가 있다. 이상이 전통적인 해녀복⁴⁾이고, 1970년대 초기부터 일본에서 들여온 '고무옷'이 일부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해녀 사이에 파급, 정착되어 재래해녀복을 착용하는 이가 이제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재래해녀복이 단시간 내에 급속히 사라진 원인은 이 옷의 제작과정, 조업시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⁵⁾

재래해녀복의 특징은 옆트임과 부분적인 스티치 또는 조각형짚을 활용하여 기능성과 실용성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제작 방법과 착용 방법이 합리적이어서 제주도 해변가 여인들은 누구나 이 옷을 속옷에서 작업복으로 다양하게 착용하였다는 점이다⁶⁾

이미 해녀복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무잡수복에서 오는 위생적인 단점으로 인해 재래 해녀복 등장의 바램과 이런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해녀복이 소멸된 안타까움에 해녀복의 제작기법을 복식디자인에 응용함으로써 계속해서 보존시킬 수 있으리라고 사려되어 이 논제를 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녀복이 언제 만들어져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재래해녀복의 기본적인 제작기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째, 해녀복의 합리적인 제작기법을 복식디자인에 응용하여 본다. 디자인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면, 장식적인 면을 고려하고, 우리 고유의상의 제작기법의 특이성인 평면적인 구성법을 충분히 살리고자 평면구성법에 제한을 두고 디자인을 구상한다.

연구방법으로 역사적 고찰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제작기법은 선행된 연구에서 해녀복을 실측,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응용된 복식디자인의 착장된 모습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여 실증한 후 구체적인 도식화로 제시하고자 한다.

3) 해녀의 작업복 일체를 해녀사회의 용어로는 '물옷' 즉, (바다)물에서 입는 옷으로 쓴다.

4)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해녀복을 재래해녀복으로, 고무옷을 개량해녀복으로 기술한다.

5) 제주지사 외 공저, 1996, 제주의 해녀, 삼화출판사, p.160

6) 고부자, 1971, "濟州道 服飾의 民俗學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미간행), p.65

II. 이론적 배경

1. 해녀복의 역사적 고찰

제주도에서는 패류나 해조류 따위의 해산물을 채취하여 생활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해녀 내지 잠수부가 필요하였다.⁷⁾

제주 해녀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약 2천년전의 제주 지역의 유적이거나 유물을 통하여 그 이전의 연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제주 해녀의 裸潛에 대한 기록은 제주도 「大韓地誌」에서 볼 수 있는데, 고려 숙종 10년에 탐라에 주당사 윤응균이 본도에 부임하여 “본도 해녀들은 나체 조업을 금한다” 라는 명령을 내린 기록⁸⁾과 조선 仁祖 7년(1629) 李健의 「濟州風土記」에서 “그 중에 천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潛女라 하는데 미역을 캐낼때는 潛女가 발가벗은 알몸으로 海汀을 遍滿하여 낚을 가지고 바다를 떠다니면서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끌어올리는데.....” 라고한 기록⁹⁾이 있어 당시 해녀들의 裸潛 풍습을 알 수 있다. 해녀복의 발생요인을 口傳에 의하면, 왜구들이 식량이나 물건을 약탈하러 해변가 마을을 자주 괴롭혔는데 이 때 바다에서 작업하고 있는 해녀들이 겁탈당하는 일이 많았다. 이 때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고안해 낸 옷이 현재의 해녀복을 발달시켰다고 하나, 문헌기록에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왜구의 약탈이나 해안선 침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종때에는 제주 방비를 위하여 무관출신의 판관을 배치시키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해녀들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녀복을 고안하였을 것이고 차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보완되어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¹⁰⁾

그러나 제주도 잠수복이 史的으로 기록된 것은 숙종28년(1702) 李衡祥 牧使 당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악습이던 동성동본 결혼과 異姓이라도 아주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을 엄금하였으며, 유처자가 공공연히 거둬 娶하는 풍속과 혼례 때 交拜하지 않는 자, 남녀가 같이 목욕하는 악습, 그리고 부녀자들의 나체 행동을 엄금하는 한편 잠녀들에게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潛女水中作業服인 특이한 양식의 작업복을 스스로 고안하여 작업시에는 해변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착용하도록 官이 명령한 것으로 보아, 현재 입고 있는 ‘물소중이’ 즉 수중작업복은 이형상 복사가 고안한 것이 아닌가 사려된다.

7) 한혜경, 1986, “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p.23

8) 우약리, 1980, 濟州道 大地誌, p.430

9) 이진, 제주풍토기

10) 고부자, 1986,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p.88-89

이와같이 해녀복은 신체보호의 수단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적 기후나 풍토적인 여건 속에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해녀복은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 해녀복이나 해녀 도구를 둘러싼 습속이나 그 변천 과정은 개개인의 자생적 의사에 따르기보다 집단과 환경의 영향이 짙으므로,¹¹⁾ 지역적 차이가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색상, 어깨끈에 있어서 변화가 있고 종래의 양식에 물적삼이 등장하였다.

현재 알려져 있는 해녀복은 물소중이와 물적삼이 있다. 물소중이는 소중이, 물웃, 해녀복, 잠녀복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미역이나 소라를 채취할 때 입는 노동복이다.

“물소중이”란 말은 內衣인 “소중이”에서 나온 말로, 소중이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나는 “속” 자에서 衣가 탈락하여 “소”가 되고 중이는 옷을 의미해서 “홀옷으로 된 속옷”이란 의미와 또 하나는 “소”는 “小”의 의미로 “홀으로 된 작은 옷”의 의미로 풀이된다. 소중이는 현재의 “팬티”에 해당되는 것이고, 물소중이에서의 “물”은 물질(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의미하여 바다에서 물질할 때 착용되는 소중이와 같은 형태의 작업복을 뜻한다.

물적삼 역시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복식디자인에 응용이 가능한 물웃(물소중이와 물적삼)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물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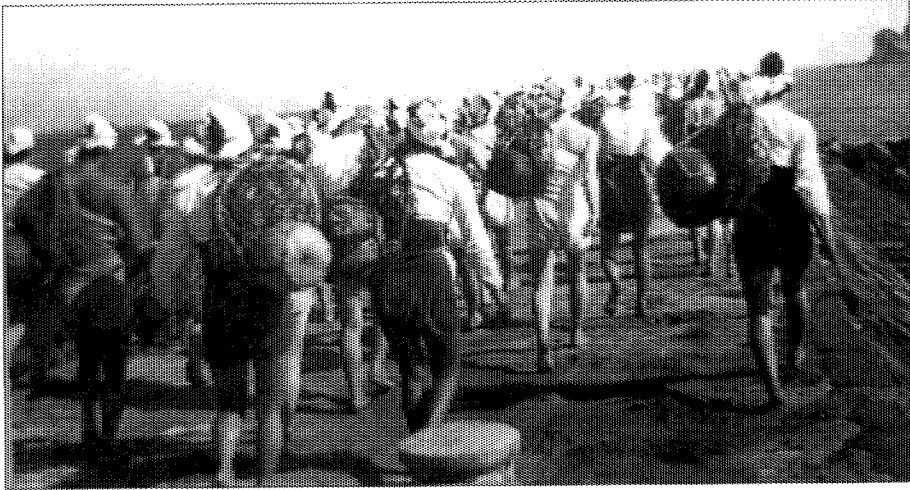
바다에서 잠수할 때 사용되는 물웃에는 (그림 1)에서 해녀들이 착용하고 있는 물소중이, 물적삼, 물수건 등으로 구성되었다. ‘물웃’의 재료는 대체로 광목이었다. 광목은 일명 倭布라고도 하는데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西洋木처럼 폭이 넓은 무명이다. 광목 이전에 무명을 먼저 사용하였지만, 무명은 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울이 성글고 짠물에 약하여 옷 수명이 짧아 ‘물웃’의 재료로는 썩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광목이 보급된 후에는 이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광목으로 해녀복을 제작하려면 먼저 한 두가지 공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뻗뻗한 풀기를 빼낸 다음, 밤낮없이 물에 적시고 또 적시면서 보름이나 한달 여를 햇볕과 이슬에 바래어, 광목의 색깔인 누런 것을 하얗게 탈색을 시킨다. 다음으로 해녀의 기호에 따라 흰 ‘소중이’ 외에 검은 것도 소유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검은 ‘소중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염색과정이 덧붙여진다.¹²⁾

11) 김영돈, 1986, “濟州海女の民俗學的研究”, 제주도연구, p.197

12) 제주지사 외 공저, 1996, op.cit., p.160

(그림 1) 물질하러 가는 해녀 무리(1950년)(만능 홍경표선생 사진전)



(1) 물소중이

소중이와 형태가 같은 물소중이는 해녀복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옷으로, 물옷·잠녀옷이라고도 하며, 해녀들이 물 속에서 미역이나 소라를 켤 때 입는 작업복이다. 그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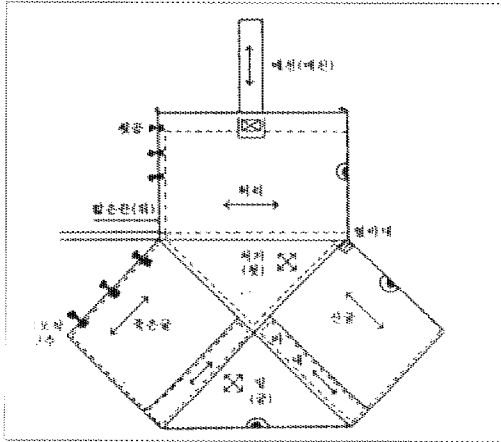
'소중이'란 제주도 부녀자들의 속옷으로, 해녀뿐만 아니라 농가의 부녀자들도 속옷으로 착용하였다.

물질 때 입는 물소중이와 농가의 부녀자들이 입는 소중이의 차이점을 보면, 소중이에는 매진(어깨걸이)이 없다. 해녀들은 매진이 달린 물옷을 속옷, 잠수복, 물 맞으러 갈 때 입는 옷으로 사용하여 때와 장소 구분없이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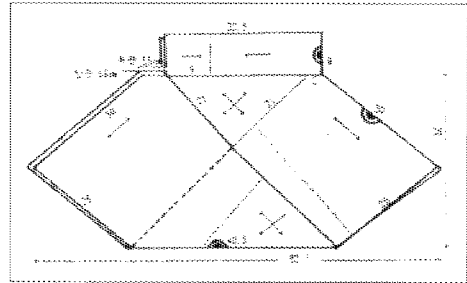
1960년대 이전까지 물옷을 속옷으로 입는 사람이 많았고 현재도 이것을 속옷으로 입고 있는 노인도 있다. 이유는 요즈음 나오는 메리야스 내의보다는 편하고 따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몸빼와 적삼을 입을 때는 허리와 가슴이 보이지 않아서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소중이'는 물론이고 해녀복은 몸에 꼭끼게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다. '소중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옆트임으로 되어 있고 끈과 '별모작' 단추로 자신의 몸에 맞게 여며 조절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신체상의 변화에 따라 즉, 임신 등으로 몸이 불었을때도 트임과 여밈을 적절히 조절하면 된다. 옆트임은 이 옷의 최대 특징으로서 어디에서도 알몸을 드러내지 않고 옷을 가라 입을 수 있는 장점이다. 또 '밑'이 이중으로 제작되어 위생상으로도 여성이 착용하기에 유익하도록 고려된 것도 특징이다.

(그림 2) 물소중이의 형태와 명칭



(그림 3) 소중이(제주민속박물관)



그리고 상체를 몸의 체형에 꼭맞게 제작되었다면, 하체는 운동량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작업시에 신체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소중이'는 검정색과 흰색 두가지가 있으며 여름에는 주로 흰색을, 겨울에는 검은색을 착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일률적이지 않고, 물질 작업의 종류와 신체적 컨디션,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착용한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처음에 속옷에서 출발한 물옷은 흰 옷이었으나 치솟 검정색을 많이 입게 되었다. 그 이유는 흰 옷은 쉽게 더럽고, 미역 등 해초류의 얼룩은 삶아도 지워지지 않았으며 월경 때도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젊은 여인들에게 검정색은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입게 되었다. 흰옷은 부지런해야만 입을 수 있었다. 삶아야 했고, 풀을 해서 다듬어질하면서 입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러한 물옷을 입는 해녀는 자신의 근면성을 과시하는 해녀였다. 검은 옷도 장만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다.

장남이나 물장수에게 물감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면 솥탕이에 삶아서 물을 들여 입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깃뿔목을 손질해서 검은 물을 들여 율을 바르게 손질하고, 풀하고, 다듬어질 한 후 물옷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옷을 장만한다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번 만든 옷은 작으면 옆으로 늘였고 단추고리로 풀을 조절하였다. 임신을 하여도 새로 장만한 것이 아니라, 트임 쪽으로 옷감을 이어서 입다가 다시 체격에 맞게 옷감을 떼내어 조절하였고 터지면 옷감을 대어서 깎고 누비고 하여 옷감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입었다.

(그림 4) 물소중이를 착용한 모습



이 물옷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1970년대 이전에 착용한 것을 재래해녀복으로, 1970년대 이후에 착용한 것을 개량해녀복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재래해녀복

1700년대 이전에는 삼베, 무명으로 만든 下衣인 소중이를 입은 것으로 추측되고, 1700년대 이후에는 주로 흰색의 무명을 사용하여, '소중이' 보다 허리를 길게 연장시키고 어깨끈(메친)을 달았으며, 트임은 끈으로 여미게 되어 있고 바대나 장식한 면은 없었다.

예전의 역사 기록에서 제주 해녀가 직접 등장한 그림 기록은 조선조 숙종 28년(1702)에 제주 목사로 부임한 李衡祥이 섬전역을 순력하면서 畫工 金南吉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耽羅巡歷圖》의 '瀆灘泛舟' 면에서 볼 수 있다. 그 그림에는 지금의 龍淵¹³⁾에서 목사 일행이 뱃놀이를 하는 바로 위쪽에 위치한 용두암 아래 바다에서 조업중인 해녀들이 생생하게 표현된 것을 통하여 해녀복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¹⁴⁾

복식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해녀는 지금으로부터 300여년 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조업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조 내내 불시에 우리나라 연안과 島嶼에 출몰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등 만행을 일삼았던 왜구로부터 해녀들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고

13) 지금의 龍淵 예전에는 翠屏潭이라고도 불리었다.

14) 제주지사 외 공저, 1996, op.cit., p.162

안해 낸 옷일 것이라고¹⁵⁾ 보는가 하면, 조선조가 과도하게 崇儒하므로 나체조업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해너복을 입게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다.

1930년대 이후에는 무명, 청목, 깃광복을 사용하였고, 젊은 해너들은 매친 대신 어깨말이(조끼허리)를 했으나 매친에 비해 어깨말이는 불편하여 매친을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다. 젊은 해너들은 가슴이 보일염려 때문에 어깨말이를 많이 이용했으며 물적삼을 입을 필요가 없어 불편하여도 입었다. 그러다가 점차 오른쪽 어깨에 트임을 내었다. 그리고 해너복은 흰옷보다 검정옷을 많이 입게 되었고, 바느질은 재봉틀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부터는 품삯을 주면서 물옷을 맞춰 입는 사람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육지로 出嫁했던 해너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해너복에 장식이 다양해졌다. 바대는 손상되기 쉬운 부분을 보호해주는 실용적인 면도 있지만 장식하는 부분도 되었다. 주로 처지, 허리, 매친, 옆트임에 재봉틀로 다이아몬드 무늬, 꽃무늬, 줄무늬 스티치로 장식하였으며 바이어스 테이프 장식도 활용하였다.(그림 5) 옆트임에는 별모작 단추를 달았다. 끈은 젖었을 때 풀기가 힘들고, 겨울에는 손이 시렸으므로 별모작 단추를 달았다.¹⁶⁾

② 개량해너복(1970년대 이후 해너복)

이것은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슈트'이다. 이 옷을 '고무옷', '스뿐씨옷', '스폰지옷', '일본잠수옷' 등으로 불렸으며 오늘날은 '고무옷'으로 통용되고 있다.¹⁷⁾

돈만 있으면 구입하여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고무옷'인 개량해너복이 등장하자 제작과정이 번거롭고 그에 따른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드는 재래해너복은 밀려나고 만다. 이 보다 더 큰 이유는 재래해너복을 입고 작업할 때와 개량해너복을 입고 일할 때의 능률과 소득에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재래해너복을 입고 물질을 하면 물속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최대한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에 따라 작업일수가 다르고 작업회수도 달라진다. 이는 재래해너복을 입었을 경우 수온의 변화에 따라 추위를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재래해너복 착용시 월별 작업과정은 1, 2, 10, 12월은 바깥기온이 낮아 1회 작업시간이 30분 정도이며, 그 외의 달은 40~60분 가량이 다.¹⁸⁾ 그러나 위의 작업시기에 따른 작업시간의 차별적용은 개량해너복이 다량 보급되면서 별의미가 없어졌다. 개량해너복은 옷의 재질의 특성상 몸을 안정된 상태로 긴장시켜줄 뿐 아니라 보온성이 뛰어나 일단 이옷에 적용하면 물속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재래해너복이 해너사

15) 고부자, 1986,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3집, p.151

16) 김정숙, 1988, op.cit., p.23

17) 제주지사 외 공저, 1996, op. cit., p.170

18) 송성대, 1996, 濟州人の海民精神, 도서출판 제주문화, p.260

회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본다.¹⁹⁾

겉감은 고무 재질을 덧입힌 것이고 안감은 네오프린(neoprene) 고무제품으로 되어 있다. 옷 목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모자와 원피스 형태의 상의, 그리고 발목을 덮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바지형태의 하의로 이뤄져있고 이에 더불어 '오리발'이라고 하는 물갈퀴를 사용하는 해녀도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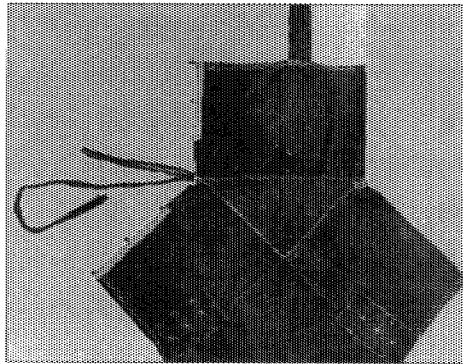
1970년대 초는 해녀복이 다양하여 면제 물옷(물소중이, 적삼)과 합성섬유로 된 물옷, 고무 잠수복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게 되었다. 스포지 옷이라고도 하는 합성고무 잠수복이 일본에서 도입된 것은 1970년 초기 한일회담 이후 일본과 통교하면서 이고, 제주도에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보급되었으나 처음에는 가격도 비싸고 형태에 대한 반감을 가졌다. 그러나 고무 잠수복을 입었을 때는 어획량이 종전의 5배 이상에 달하여 수입도 5배로 높아지므로, 1975년대에는 거의 보급이 되었다. 고무 잠수복은 면제 해녀복을 착용하던 1960년대의 1일 열량 섭취량 3000kcal와 비교할 때 고무 잠수복을 착용하는 오늘날의 열량 섭취량은 현저히 적어 비해녀보다 230kcal정도 더 섭취하면 된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잠수복의 열절연(thermal insulation)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조업 시간도 길어져 종전 30분~1시간에서 5시간 이상으로 크게 길어지고 조업 장소가 수심 10m 해역에서 12m~13m로 깊어지면서 자원 고갈과 해녀의 직업병이 문제점으로 파생되고 있다. 우선 고무 냄새를 독하게 풍기므로 오랫동안 냄새를 맡게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입고 있을 때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 오르게 된다. 그 밖에도 부력이 증가하여 잠수하기가 힘들게 되므로 납덩어리를 차게 되는데 이것이 허리에 부담을 주고 요통의 원인을 더하기도 한다. 또한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 배설물 처리가 곤란하므로, 식사를 거르고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에서 오는 위장병, 수압에서 오는 청각장애, 심장계통의 직업병이 일반화되어 약물 복용이 보편화되어 버렸다.²¹⁾ 그래서 일부 어촌계 위원이나 해녀 연구가들은 자원 고갈과 해녀의 건강을 위해서 고무 잠수복 착용을 금지하고 재래식 면제 해녀복을 다시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녀의 생계 유지비 때문에 해녀를 위한 사회복지 대책이 세워진다면 재래식 면제 해녀복이 다시 등장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19) 제주지사 외 공저, 1996, op.cit., pp.161-162

20) Ibid., p.170

21) 김은희, 1993, 『濟州潛嫂의 生活史』,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p.71

(그림 5) 스티치로 장식된 물소중이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p.105)

(2) 물적삼

잠수할 때 물소중이 위에 입는 흰 무명옷으로 적삼이나 블라우스의 형태와 비슷하다.²²⁾ 우리나라에 블라우스가 여학생에게 보급된 것이 1930년이기 때문에 물적삼이 해녀복으로 등장한 것은 1935년 이후로 추측된다. 그 이전에는 옷감이나 옷이 귀했기 때문에 물옷 하나만 입고 바다에서 작업했으며 추운 겨울에는 물옷 속에 내의류나 적삼을 입어 작업하였다. 물적삼이 일반화된 것은 1960년대로 현재 80세 이상되는 노인들은 물적삼을 입지 않고 작업을 한 사람도 많았다. 이유는 물적삼을 입으면 물속에서 불편하여 작업하기 힘들었으며 물적삼을 만드는 경비와 시간과 노력에 비해 실용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햇볕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서 노인보다 젊은 해녀들이 많이 입었다. 물적삼 형태는 마치 한복 적삼과 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물적삼과 한복적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물적삼과 한복적삼과의 비교

부위 \ 종류	물적삼	한복적삼
여밂	좌입	우입
진동 및 배래선	일직선	곡선
진동나비	15 ~ 18 cm	물적삼 진동나비 + 5 cm
넥라인, 앞품	라운드 넥라인, 앞품과 뒤품이 같다.(단추고리로 여밂)	V - 넥라인
깃, 셔	無	有
도련, 소매부리	끈치리 (몸에 밀착하기 위함)	찍어 박아서 처리

22) 부에진, 1990, 濟州地方 民俗服의 勞動服의 製作技法에 對한 研究,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p.30

겉은 소중이에 흰 직삼은 산뜻하여 멋을 부리면서 입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는 검정 광복에 흰 실로 스티치를 놓은 물적삼을 만들어 입는 젊은이도 있었다. 그러나 곧 고무 잠수복의 등장으로 오래 입지는 못했다.²³⁾

2. 해녀복의 제작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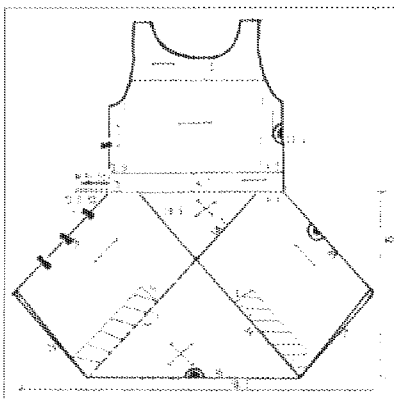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제작기법 중 구성법만 다루고 봉제법은 차후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1) 물소중이

소중이는 제주지방의 여성들이 가장 속에 입는 옷으로 팬티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중이의 형태에서 물소중이가 생겨났는데, 이 옷은 살에 직접 닿는 內衣의인 기능으로 볼 수 있으나, 잠수작업때에는 표면에 노출된 겉옷으로 입는 작업복의 기능으로 보아 內衣의 外衣化한 二重기능도 겸비하고 있다.²⁴⁾

재료는 주로 미녕²⁵⁾을 사용하였으나 광복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광복에 검정물을 들어서 만들었다. 제주에서는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무명의 폭이 소중이를 만들기에 적당한 치수로, 그것을 접어서 만들고, 허리, 끈, 처지 등은 따로 재단하여 붙였다. 오른쪽 옆은 완전히 터져서 끈이나 매듭단추를 달았고 밑부분은 두겹이 되므로 다리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즉 소중이와 같은 형태이나 소중이보다는 좀 더 견고성과 편리함이 우선이며, 가슴을 감싸야하므로 허리 위의 길이를 길게 하고 작업 때에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깨끈을 달았다.

(그림 6) 조끼허리가 달린 물소중이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물소중이의 형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림 1)과 같은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 6)과 같이 조끼허리가 달린 형태로, 전자와 후자는 10년 정도의 차가 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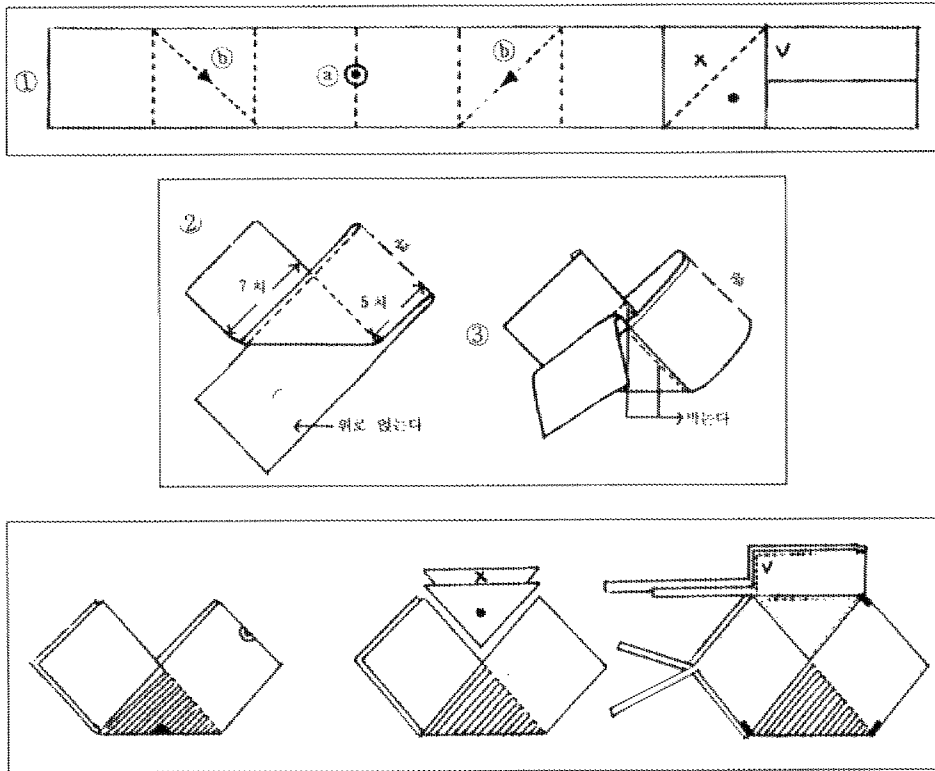
접는 간격(굴잡기)은 체형이나 동작범위에 따라 알맞게 제작되어진다. 마른 사람은 간격을 좁게 잡고, 살이 찢거나 임산부는 넓게 제작되어진다. 물소중이 제작방법(A 방법)은 (그림 7)의 ①에서 먼저 a를 접은 후, 양쪽의 b를 꺾어 ②의 모양으로 만든다. ②의 c를 위로 얹어 ③과 같이 만든다. 그러면 밑(굴)이 바이어스방향의 두 겹이 겹쳐지게 된다.

23) 김정숙, 1988, op.cit., pp.25-26

24) 고부지, 1986, "제주도 여인의 속옷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88

25) 본도에서는 무명을 미녕이라고도 불렀다.

(그림 7) 물소중이 제작기법 (A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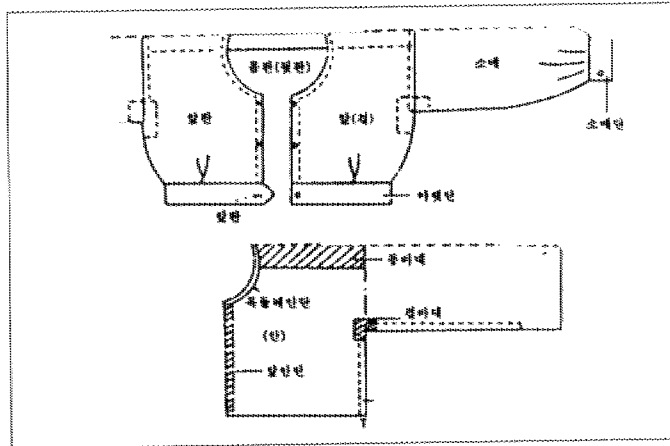


보통사람은 부리를 5치(25.7cm)로 잡으므로, 속옷에는 3자 5치가 소요된다. 소중이를 마름질할 때는 7치인 폭의 천이 4자가 소요되지만, 물소중이는 7치 폭의 천이 7자~9자가 소요된다. 7자인 경우는 끈이 달려있는 형태이고 9자인 경우는 조끼허리를 단 형태의 경우이다.

2) 물적삼

잠수할 때 물소중이 위에 입는 것으로서, 형태는 적삼과 블라우스의 중간형으로 개량시킨 것이다. 등바대를 대거나 저드랑이 바대를 대는 것은 갈적삼과 같을 때 부리와 도련에 고무줄을 넣어서 잠수할 때 활동성을 주었다. 깃과 동정이 없으며 앞단은 서양복과 같이 접혀 박는다. 단추는 매듭단추를 단다.

(그림 8) 물적삼의 형태 및 명칭



Ⅲ. 제주 해녀복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제주 해녀복의 기본적인 제작방법의 구성법을 복식디자인에 응용하여 보았다. 디자인에서는 세가지 측면, 즉 기능적인 면, 구조적인 면, 장식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녀복 역시 우선 몸에 맞는 실용적인 측면이 고려된 활동적이고 위생적인 면과 특수한 직업, 아동, 임신부 등을 위해 디자인된 기능적인 디자인(functional design)과 용도에 맞고 시각적으로 어울리는 구조적인 면(structive design)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스티치, 조각형질 등의 장식적인 측면 모두가 고려되어 디자인된 의복이라고 사려된다. 따라서 디자인을 구상함에 있어, 우리 고유 의상의 제작기법의 특이성인 평면적 구성법을 최대한 살리고, 또 해녀복에 주로 쓰인 소재가 면이므로, 해녀복의 제작기법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평면적인 구성법과 면소재에 제한을 두고 작업하였다.

구성법을 응용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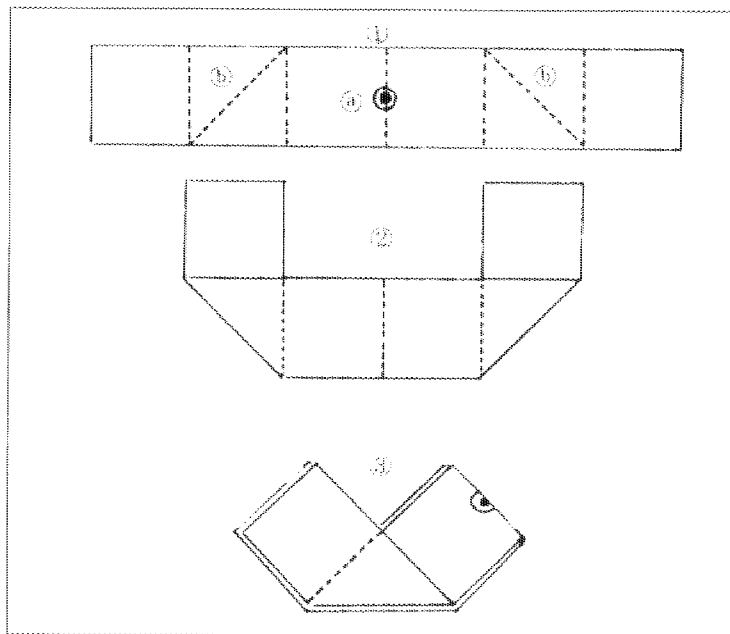
재래해녀복의 간편한 제작방법은 옷감의 폭을 충분히 이용하여 접기만 하면 직선에서 처리가 되고, 또 체형에 따라 접는 치수가 조절되며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아동복, 여성복, 심지어는 남성복조차에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구조적으로 접는 방법을 변형시킨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물소중이의 제작방법(접는 순서)을 편의상 A 방법, 변형시킨 제작방법을 B 방법이라고 기술하고자 한다. 변형된 제작기법(B 방법)은 (그림 9)의 ①에서 양쪽의 b를 꺾어 ②의 모양으로 만든 후 a

를 접어 ㉑과 같이 만든다. B 방법은 A 방법과 달리 밑이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트임이 되므로, 인체를 축으로 하여 조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item)들 즉, 드레스(dress), 스커트(skirt), 베스트(vest) . . . 등에 응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림 9) 변형된 제작방법(B 방법)



1) 아동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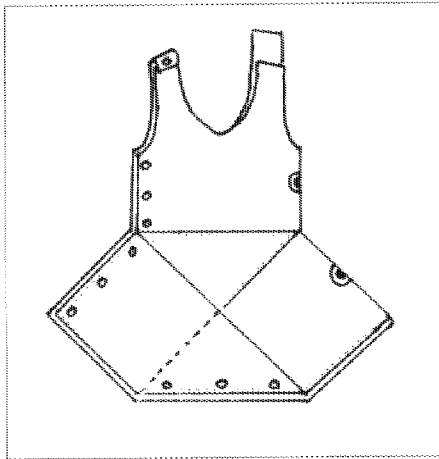
(그림 10)은 아동복에 B 제작방법을 응용하여 디자인을 제시한 것이다.

생후 6개월 ~ 2년 반의 유아(the toddler)는 의복이 주는 구속감과 입고 벗는 과정을 몹시 싫어한다. 즉 자유롭게 벌거벗고 있는 상태를 좋아하므로 아기가 서고, 앉고, 기고, 달리고, 오르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복이 동작을 구속하지 않는 편안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헤너복에서 디자인을 응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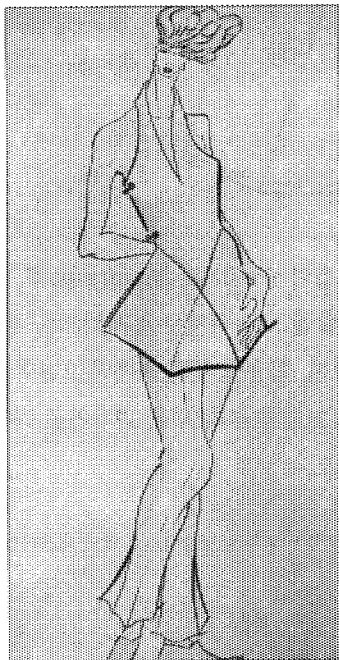
그 이유는 헤너복의 기본 제작방법의 특징에 밑바대가 180도 수평이며 바이어스 쪽으로 되어 있어 다리 운동의 활동범위를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성장을 해도 허리끈이나 옆선에 달린 끈으로 조절이 되므로 실용적이기 때문이며, 밑바대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바대의 부위가 넓기 때문에 분비물의 흡착성이 좋으며, 밑이 180도 직선이므로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음선이나 활동력이 심한 부위에는 힘바대를 따로 덧대어서 견고하고 실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해너복의 특징을 응용하여, 강임(gingham)을 B 방법으로 제작하여 단추만 풀면 쉽게 벗길 수가 있어서 편리하다는 것과 밑이 바이어스 방향으로 되어 있어 몸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용시킨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그 형태가 마치 롬퍼스(rompers)와 유사하다.

(그림 10) 롬퍼스



(그림 11) 홀터형의 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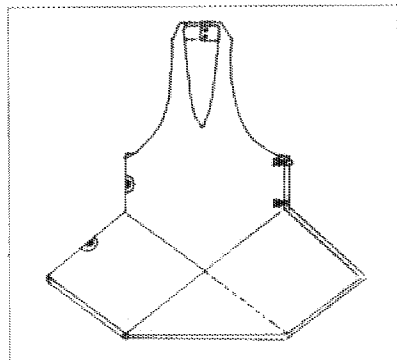
2) 여성복

여성복을 디자인함에 있어 기능성과 美를 중요시하여, 기능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기능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 장식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1)은 해너복의 2차원적인 형태(shape)가 마치 우리 고유의 복주머니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베스트(vest)에 이 형태를 적용시킨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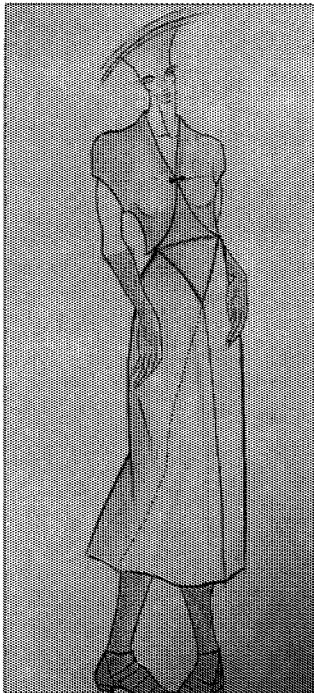
조끼허리가 달린 물옷의 외형을 차용하여, 엉덩이까지 오는 홀터 네크라인(Halter neckline)형⁸⁾의 베스트를 디자인하였다. 제작방법은 옷의 외형을 살리기 위한 직물인 수에드(suede)⁹⁾를 B 방법으로 접어, 뒤목선 중심에서 단추로 여미입고 위에서 아래까지의 옆트임은 별도로 단추로 여미게 되어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을 도식화로 표현한 것이 (그림 12)이다.

(그림 12)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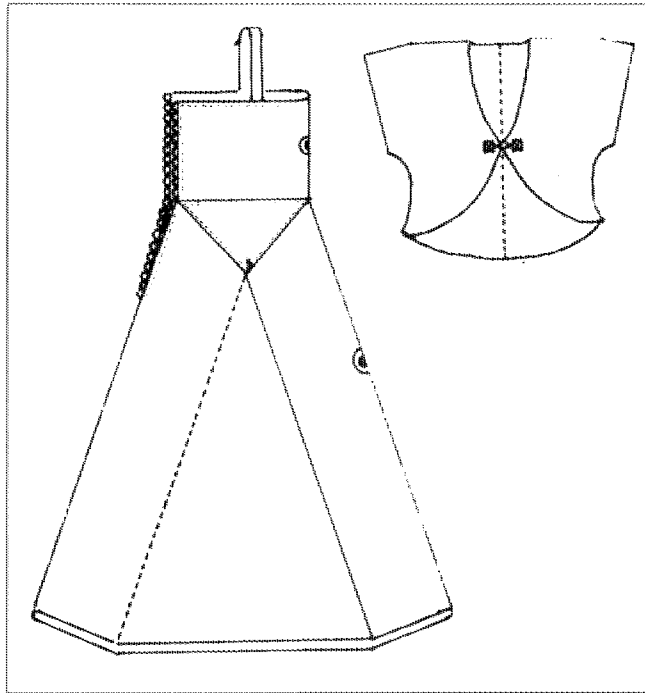


(그림 13) 역시 옷의 외형을 살릴 수 있는 직물인 오간디(organdy)²⁶⁾를 B 방법으로 접어 만든 이브닝 웨어(evening wear)와 보레로(bolero)이다. 종아리까지 오는 드레스는 물소중이에 달린 매친의 역할을 하는 스트랩(strap)을 달았고, 옆트임을 패브릭 루우프(fabric loop)로 여머입게 디자인 한 것이 특징이다. 드레스 위에 착용한 보레로는 물적삼을 변형시킨 것으로, 프렌치 소매(french sleeve)를 달고 V-넥크라인과 V 모양의 앞자락이 조화를 이루게 디자인하였다. 앞트임은 별모작 단추로 여머입게 디자인 한 것이다. 그것을 도식화로 표현한 것이 (그림 14)이다.

(그림 13) 이브닝 웨어와 보레로



(그림 14) 도식화



(그림 15)는 기능적이고 장식적인 측면을 고려한 짧은 길이의 점퍼 슈트(short jump suit)로, 수에 드를 A 방법과 B 방법을 모두 적용시킨 디자인이다. 상체는 B 방법으로, 하체는 A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상체는 두 개의 별모작 단추로 고정시켜 착용할 수 있으며, 착용시 왼쪽 소매와 오른쪽 소매 부위가 부조화된 형태로 통일된 효과(Co-ordination)와 완성된 느낌을 주기 위한 디자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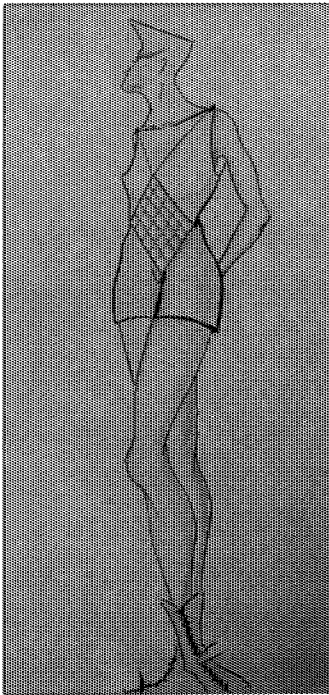
26) 앞 몸판에서 이어진 스트랩이나 밴드를 목 뒤로 두른 듯한 느낌을 주며, 보통 팔이나 등은 노출시키고 앞의 넥크라인은 깊게 판다.

27) 한쪽 면이 수에드 가죽처럼 보이는 두꺼운 평직의 면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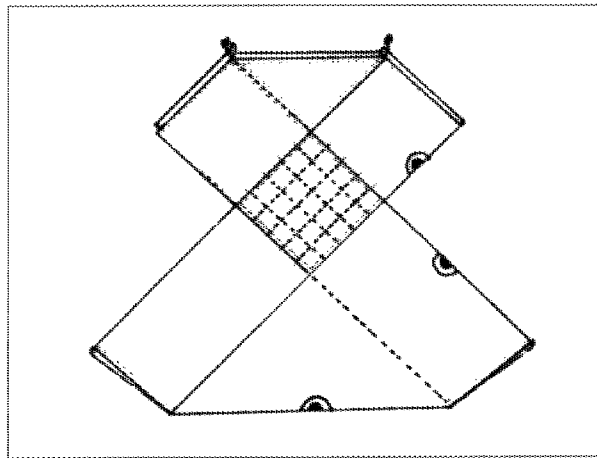
28) 얇고 헐헐하며 투명한 평직의 면직물.

미드리프(midriff) 부위에 퀼팅(quilting)된 처지를 달아 강조부위를 창조한 것도 이 디자인의 특징이다. 그것을 도식화로 표현한 것이 (그림 16)이다.

(그림 15) 짧은 점퍼 슈트



(그림 16) 도식화



그 외에도 많은 아이템에 이 제작기법을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IV. 결 론

해녀복인 물소중이는 물웃, 잠녀옷이라고도 하며, 해녀들이 물 속에서 미역이나 소라를 캐 때 입는 작업복이다. 즉 소중이와 형태가 같은 작업복으로서, 內衣의 外衣化한 二重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견고성과 편리함이 특징이다. 해녀복에 대한 발생연도와 근거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발생요인을 口傳에 의하면 잦은 왜구의 출현과 생업의 수단으로 그들 나름대로 창안해내고 발전시켜왔다고 한다. 1970년 이전까지 착용해 온 재래해녀복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섬유인 베나 무명의 폭을 이용하여 알맞게 재단하는 방법과 작업에 합리적이고 활동적인 옷으로까지 개발시켜왔으나, 1970년의 한일협정 이후 일본에서 고무잠수복이 들어옴으로써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됨으로써 사라져버려, 오늘날 재래해

너복을 착용한 해녀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물소중이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옆트임이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다, ② 다양한 방법으로 장식된 작업복이다, ③ 제작방법이 합리적이다, ④ 입고 벗기가 편리하다, ⑤ 다양한 용도로 입었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재래해녀복의 간편한 제작방법은 옷감의 폭을 충분히 이용하여 접기만하면 직선에서 처리가 되고, 또 체형이나 동작범위에 따라 접는 치수가 조절되며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대 복식디자인에 응용하였다. 디자인을 구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장식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우리 고유의상의 제작기법의 특이성인 평면적 구성법을 최대한 살리고, 또 해녀복에 주로 쓰인 소재가 면이므로 해녀복의 제작기법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평면적인 구성법과 면소재에 제한을 두고 작업하였다.

따라서 물소중이의 접는 방법을 변형시켜 아동복, 여성복, 심지어는 남성복 조차에도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다고 본다. 아동복은 해녀복의 입고 벗기가 쉬운 점과 피부에 직접 닿지않는다는 점을 차용하여 디자인 하였고, 숙녀복의 베스트나 드레스, 점프 슈트는 해녀복의 구조적인 조형미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 장식적인 면 모두와 접어서 직선 처리하는 것을 응용하여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구성법에 따른 현대 복식디자인에만 응용을 시도하였으나, 차후 봉제법에 따른 디자인 응용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옷에서도 입기가 불편하고 착용한 후에도 불편한 옷을 위한 개량복에 대한 디자인도 시도해 볼 예정이다.

참고 문헌

- 고부자, 1971, “濟州道 服飾의 民俗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미간행).
- _____, 1986,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3집.
- _____, 1986,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 김영돈, 1986, “濟州 海女의 民俗學的 研究”, 제주도연구 제3집.
- 김은희, 1993, “濟州 潛嫂의 生活史”,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숙, 1988, “제주도 해녀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만농 홍정표 선생 사진전 제주사람들의 삶II.
- 부애진, 1990, “濟州地方 民俗服인 勞動服의 製作技法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송성대, 1996, 濟州人의 海民精神, 도서출판 제주문화.
- 유송옥, 1997, 복식의장학(Fashion Design), 수학사.
-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도록, 1997.

- 제주문화자료총서 제주의 민속IV, 1996.
- 제주지사 외 공저, 1996, 濟州의 海女, 삼화출판.
- 조규화, 1995, 服飾美學, 수학사.
- 한림화, 김수남, 1987,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한길사.
- 한혜경, 1986, “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Harriet T. McJimsey, 1973, Art and Fashion Design in Clothing Selection, Iowa State Univ. Press Ames.
- Helen L. Brockman, 1965,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Marian L. Davis, 1980,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